

신나는 과학축제 ‘컬러풀 사이언스’



광주과학관, 테마 전시·체험·강연 등 다채 21일부터 9개 기관 참여... 연구 성과물 전시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4월 과학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봄 과학축제 ‘컬러풀 사이언스’를 한 달 간 개최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테마 전시·체험·강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콘텐츠를 제공한다.

과학축제에는 첨단에 위치한 연구기관들과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한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성과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관은 ‘놀이로 만나는 수학’ 공간을 마련했으며, 레이저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트리스타, 수소 전지차 융합 스테이션, 광양자비시

설 모형 등 평상시에는 볼 수 없던 연구 결과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최근 높이 문화로도 급부상 중인 VR 체험도 가능하다. VR을 활용한 비행 시뮬레이터와 VR기반 운동기구 등을 통해 무궁무진한 VR의 세계를 접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빛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 전시 및 컬러 그림자놀이를 마련해 전시의 재미를 더하는 등 과학교육뿐 아니라 문화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과학축제가 시작되는 21일과 22일에는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하는 등 특별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된다.

양일 오후 3시부터는 미래 아이들은 어떤 자동차를 탈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 ‘동화로 만나는 미래자

동차’가 열린다. 공부 뿐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참가자들에게 해당 동화책도 증정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2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근영 교수가 진행하는 ‘스티븐 호킹 추모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스티븐 호킹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그가 추구해온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해 설명한다.

이밖에 ‘사이언스 별문쇼’, ‘바스봄 만들기’ 등 주말행사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컬러풀 사이언스’는 오는 5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자세한 과학행사 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보람 기자



국악아카펠라 공연

아카펠라로 변신한 국악

광산하우스콘서트 예술나눔 콘서트 25일 ‘보이스&하모니’ 공연 마련

광산구는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광산문화회관에서 예술나눔 콘서트 ‘보이스&하모니’ 공연을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한 공연은 2018년 광산하우스콘서트 첫 무대로 국악아카펠라그룹 공(共)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하모니테라피가 함께한다.

국악아카펠라그룹 공은 한국적 아카펠라를 만들어가는 팀으로 세계적인 공감하는 음악을 창작해 공연하고 있다. 우리 고유 음악과 현대 음악의 조화가 돋보이는 공연단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 음악인들이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하모니테라피는 2009년 발족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국악 아카펠라곡 ‘매화타령’, ‘풍구소리’ 등과 플루트, 오카리나, 색소폰 악기로 듣는 ‘제주의 왕자’, ‘아름다운 나라’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공연은 무료로 입장하고 느낀 감동만큼 기부하는 감동후불제로 진행하며 모금액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공연은 초등생 이상 누구나 관람가능하며 광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중이다.

문의 062-960-8833.

/이연수 기자

“문화예술 지원엔 청탁금지법 예외 필요”

김영호 메세나협회장 “취지 좋지만 문화예술 지원 위축 우려”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 공연 티켓 구입 불가...10만원 높여야



김영호 회장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74)은 “문화예술 지원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신임 협회장은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라 기업들이 문화공헌 사업으로 공연 티켓을 사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든지, 제한을 아예 안 둘 수 있도록 향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페라 등 순수예술 공연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 표가 다 팔려도 적자인 구조”라며 “풀린 표라도 다 팔릴 수 있도록 기업들이 티켓을 구매해 임직원이나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임기 중 추진할 또 다른 중점 사업으로 기업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꼽았다.

2007년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공연·전시·스포츠경기 관람권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기업 접대비 중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로 유도해 예술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기업 접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술계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문화 소비를 활성화시켜 간접 지원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지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 입장에서야 부담스럽지만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전시나 공연들을 접할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23일 주라영 작가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아홉번째로 주라영 작가의 작업실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방문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지역작가들은 이날 동구 계림동에 있는 주라영 작가 스튜디오를 찾아 작업 세계를 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주라영 작가는 무한경쟁 시대 살아남

기 위해 맹목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군상 설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등의 실존적인 입장에서 인간·본질을 관객에게 물어보는 설치작업”이라고 설명한다.

문의 062-608-4233.

/이연수 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